

9-1-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예레미야 49:34-39

말씀 제목: 때에 따른 예언의 메시지(엘람(이란)과 이스라엘)

이번 주에는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지게 되는 때에 따른 예언의 메시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착오 없이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의 일부분 지역에 해당됩니다. 고대 성서 지도를 보면, “엘람”은 옛 비빌로니아 접경 지대에 있었고, 페르시아만의 북단에 위치합니다. 고대 “엘람”의 한 지역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란의 “부셀” 지역은 거기 있는 핵 시설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4 장은 소돔을 공격한 연합군의 대장인 “그들로아멜 왕”이 바로 “엘람”의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아멜”은 그 당시 가장 포악했던 왕이었고 아브라함이 그와 싸워서 이긴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람”의 활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렘 49:35)

그 당시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무기였던 활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 장에서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역시 핵무장을 하고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활 통은 비어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엘람의 활을 꺾으신 것이나, 적그리스도의 활 통에 활이 없는 것이나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란이 보유할

핵이나 적그리스도의 핵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란에게 네 바람과 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엘람에게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의 쫓겨난 자들이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렘 49:36)

앞으로 이란에 불게 될 네 바람은 핵폭팔로 인한 핵폭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란의 핵이력 파괴되면 이란 사람들은 핵폭풍을 피해 달아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나라들로 다 피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 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렘 49:37)

하나님께서서는 엘람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훗 날들에 내가 엘람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렘 49:38-39)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보좌는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보좌가 엘람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엘람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훗 날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들이 있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란이나 모든 세상 나라들은 모두 없어진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둘째로, 엘람에 보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앞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이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란은 가장 포악한 시아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조만간 성취될 것입니다. 이란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는 어느민족이든 예외가 없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네가 행했던 대로 네게 행해지리라. 네 보응이 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오바다 1:15)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슬 2:8)

성경은 마지막 때인 오늘날 모든 민족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지상으로부터 멸하기로 연합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같이, 키손 시냇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족들로 오렘과 스엘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하였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의 검불처럼 되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산에 붙는 화염같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채우시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수치에 처하여 멸망당하게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시 83:1-18)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창 12:2-3)
아멘! 할렐루야!